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이견

경제자유구역청, 19km² 추가 지정 추진에

여수시 “묘도 일대 10.5km² 독자 개발할 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둘러싸고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묘도를 비롯한 여수 일대 19km²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나 여수시는 이들 지역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과 여수, 순천 그리고 경남 하동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90km² 외에 추가로 19km²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2~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신규 지정될 경우 무한경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면적을 늘려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을 비롯해 진해·부산, 인천 등 3곳이 지정돼 있으며, 강원과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남, 전북 등 5곳이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여수시는 확대 지정 후보지 가운데 울촌 3산단을 제외한 여수~고흥 간 11개 연륙·연도교 주변과 묘도 등 10.5km²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이들 지역의 경우 연륙·연도교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계획

과 연계돼 있으며 또 현재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12월 초에는 확대 지정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라며 “여수시가 끝내 반대한다면, 확대 지정 대상지역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 돌산 갯김치 고유 품종 육성

여수 돌산 갯김치의 고유 품종이 집중 육성된다. 여수시는 최근 국립 종자관리소에 ▲늦동이 돌산갯 ▲순동이 돌산갯 ▲신동이 돌산갯 등 3개 품종에 대한 보호 출원을 마쳤다. 시는 돌산갯 재배 농가들을 상대로 3개 품종을 체계적으로 재배·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7년 여 연구 끝에 출원된 마친 늦동이 돌산갯은 봄철 조기 재배 품종이며, 순동이



이주여성들과 함께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광양제철소 직원들과 광양지역 봉사단체 회원 40여명은 20일 광양제철소 주택단지 철조각공원에서 외국인 이주여성 30여 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광양제철소는 이날 1천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100여 세대에 전달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여도초등 인근 주민 자녀 입학 결론 못내려

재단 이사회에서 일부 반대...여수교육청과 협의키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여도초등학교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인근 주민 자녀의 입학 허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여도초교 1학년 정원 175명 중 168명을 산단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로 충원하고, 나머지

7명은 학교 인근 주민 자녀 중 추천을 통해 입학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이사들은 1학급을 늘려서라도 주민 자녀들에게 입학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학교장과 재단 이사회 사무국장 등이 여수시교육청과 협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80년대 초반 설립

된 여도초교는 내년부터 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에 한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내년부터 주민 자녀들의 입학권이 막힐 경우 봉계동에 거주하는 40여명의 학생들이 4km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한편 여수시교육청은 재단 이사회에 주민 자녀의 입학할 수 있도록 권고해 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종이 접고 도자기 빚고... “문화체험 재미 있어요”

순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학교’ 인기

순천시가 지난 9월부터 읍·면 등 농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학교’가 도·농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학교는 읍·면 지역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까지 18개 학교 1천3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종이접기와 도자기체험(사진), 민화에습교육, 생활과학교실, 로보트학교실, 염색체험 등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져 농촌지역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벽지학교 학생들이 다양



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같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 경도 땅 36% 외지인 소유

해양단지 개발 여과... 471명 110만㎡ 달해

해양테마단지로 개발되는 여수시 경도 땅의 외지인 소유 비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최근 경도 일대 306만 m²에 대한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 471명이 740필지, 110만m²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외지인 1명 당 평균 2천 335m²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외지인 소유 비율이 높은 것은 10여 년 전부터 ‘경도를 개발

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외지인들의 토지 구매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 거래 건수는 2005년 140건, 2006년 94건, 올 들어 7월 말까지 102건이었으며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50건의 매매가 성사됐다. 토지 가격도 매년 상승해 현재 m²당 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난 9월 경도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2년까지 경도 일대에 사업비 3천22억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해양테마 펜션단지를 조성한다. 도는 다음 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인·허가, 용지보상, 조성공사, 분양,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전남 개발공사가 맡게 된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재배면적 확대 수확량 늘어 광양·순천지역 감 가격 폭락

과잉 생산으로 감값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 주산지인 광양시와 순천시 등의 경우 재배면적 확대로 수확량이 지난해 보다 단감 20%, 뽕은 감은 52% 가량 늘었다. 단감 가격은 도매시장에서 15kg 1상자(상품 기준)가 지난해보다 20~30% 떨어진 2만원, 꺾감용으로는 팔리는 뽕은 감은 한접(100개)당 1만7천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저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은 할갠에 출하하고 있으며 특히 단감은 수확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돼 인건비 부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농민들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감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21·22일 이틀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광양제철소, 서울 등지에서 특별판매 행사를 갖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 성 853-9700	해 념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21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극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신 944-0444
	함 평 324-8111	

**연태가 박직으로
필립되는 난방**

“말레오” 방직외신
필립난방이 책임집니다.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TEL. (062)282-0101

겨울방학 블리민 영어캠프

www.blivmin.com

영어캠프

1. 영어회화

2. 영어듣기

3. 영어쓰기

4. 영어말하기

5. 영어듣기

6. 영어쓰기

7. 영어말하기

8. 영어듣기

9. 영어쓰기

10. 영어말하기

11. 영어듣기

12. 영어쓰기

13. 영어말하기

14. 영어듣기

15. 영어쓰기

16. 영어말하기

17. 영어듣기

18. 영어쓰기

19. 영어말하기

20. 영어듣기

21. 영어쓰기

22. 영어말하기

23. 영어듣기

24. 영어쓰기

25. 영어말하기

26. 영어듣기

27. 영어쓰기

28. 영어말하기

29. 영어듣기

30. 영어쓰기

31. 영어말하기

32. 영어듣기

33. 영어쓰기

34. 영어말하기

35. 영어듣기

36. 영어쓰기

37. 영어말하기

38. 영어듣기

39. 영어쓰기

40. 영어말하기

41. 영어듣기

42. 영어쓰기

43. 영어말하기

44. 영어듣기

45. 영어쓰기

46. 영어말하기

47. 영어듣기

48. 영어쓰기

49. 영어말하기

50. 영어듣기

51. 영어쓰기

52. 영어말하기

53. 영어듣기

54. 영어쓰기

55. 영어말하기

56. 영어듣기

57. 영어쓰기

58. 영어말하기

59. 영어듣기

60. 영어쓰기

61. 영어말하기

62. 영어듣기

63. 영어쓰기

64. 영어말하기

65. 영어듣기

66. 영어쓰기

67. 영어말하기

68. 영어듣기

69. 영어쓰기

70. 영어말하기

71. 영어듣기

72. 영어쓰기

73. 영어말하기

74. 영어듣기

75. 영어쓰기

76. 영어말하기

77. 영어듣기

78. 영어쓰기

79. 영어말하기

80. 영어듣기

81. 영어쓰기

82. 영어말하기

83. 영어듣기

84. 영어쓰기

85. 영어말하기

86. 영어듣기

87. 영어쓰기

88. 영어말하기

89. 영어듣기

90. 영어쓰기

91. 영어말하기

92. 영어듣기

93. 영어쓰기

94. 영어말하기

95. 영어듣기

96. 영어쓰기

97. 영어말하기

98. 영어듣기

99. 영어쓰기

100. 영어말하기